

올해 대형 총기 사고 22건...총 115명 숨져



▲ 지난 6일 달러스 북쪽 앨런 프리미엄 아울렛 몰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시민들이 황급하게 대피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뉴스1

올해 들어 지난 8일 현재까지 미국에서 22건의 대형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 11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은 9일 AP통신·USA투데이·노스이스턴대학교 데이터를 인용해 이와 같이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까지 기록된 8건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총격범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숨진 경우 '대형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분류된다.

또이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총 36건의 대형 총기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최소 186명이 숨졌다.

처음 통계를 집계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551건의 총기 관련 대형 살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2,870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노스이스턴대학의 범죄학 교수인 제임스 앨런 폭스는 "나는 이 주제를 40년 동안 연구해 왔다"며 "2023년 데이터는 데이터가 기록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최악"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기 관련 대형 살인 사건은 매년 평균적으로 6건 발생한다"며 "올해는 이미 6건을 넘었다"고 경고했다.

전 연방수사국(FBI) 요원이자 총기 난사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캐서린 슈웨이트는 "많은 미국인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총기 폭력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위해 등교시간 늦추는 학교 증가

펜실베이니아주 델라웨어 카운티의 어퍼더비고등학교는 오전 7시30분이던 등교 시간을 9시45분으로 2시간 이상 늦췄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어퍼더비고등학교처럼 등교 시간을 늦추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은 미국 10대 학생들에게 미치는 정신건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지속적인 슬픔이나 절망감을 표현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다. 정신건강이 위기에 처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들도 늘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어푸 빅스틴 '수면, 건강 및 사회' 연구책임자는 "수면이 부족하면 의사 결정이나 극단적 선택 충동과 같은 정신건강 문



▲ 수업을 듣기 위해 이동중인 어퍼더비고교 학생들. 사진=AP/뉴스1

제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며 "이제 아침 7시30분이라는 고등학교 등교 시간은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등교 시간을 늦춘 이래 현재 적어도 9개 주들이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에까지는 4개주만이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것을 검토했다.

다만 등교 시간을 늦춤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시간이 줄었다는 비평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어퍼더비고에 재학하고 있는 들랏은 "등교 시간을 늦춘 것에 효과는 서서히 쌓이고,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계 미국인 약 20%만 공동체 소속감

아시아계 미국인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다른 인종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시아안 아메리칸재단(The Asian American Foundation)은 전일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적 추적 연구'(STAATUS)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이 재단이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미국의 16세 이상 남녀 5천2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설문 조사 결과 아시아계 응답자의 22%만이 미국에서 소속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백인 응답자(5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흑인 응답자의 25%, 라틴계의 24%보다도 낮았다.

미국에서 가장 우대받는 인종에 대한 질문엔 응답자



▲ 작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안 증오 범죄 규탄 집회 모습. 사진=shutterstock

의 51%가 백인이라고 답했다. 이어 흑인(13%), 라틴계(9%), 아시아계(8%) 등 순이었다.

흑인의 경우 차별받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59%에 달했으며, 아시아계는 47%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5%는 아시아계에 대한 공격을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지목했으며 공격의 이유로는 코로나19에 대한 원인 지

목(73%)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아시아계 미국인을 떠올릴 때 응답자의 69%는 중국계를 연상하며, 일본이라는 답변도 54%로 과반을 넘었다. 한국계가 떠오른다는 답변은 31%로 세 번째였다(복수 응답).

더 많은 연구 결과는 www.taaf.org/news/taatus-index-23-press-release에서 볼 수 있다.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